

“설 민심 잡아라” 국회의원·조합장 입지자들 ‘귀성마케팅’



공명선거 다짐

오는 3월 11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위와 농협, 경찰 등 관계자들이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길어진 설 연휴 민생점검 절호 기회 재래시장·복지시설 등서 ‘세배투어’

■ 광주·전남 국회의원 설명절 어떻게 보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바쁘다.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듣고 전한 여론이 향후 정국에 물론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번 설 명절을 내년 총선전의 시작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귀향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 갑이 지역구인 김성곤 의원은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의 실무적 중책을 맡고 있는 여수박람회재단에 둘러 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은 빛고을사회복지관·장애인협회·이일성로원·천혜경로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설날 인사와 함께 각종 민원을 들을 생각이다. 우윤근 의원(광양 구례)은 지역구 내에 위치한 포스코를 찾아 교대근무자를 격려한다는 생각이다.

김동철(광산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은 “다양한 기업인을 만나 8개 산업단지 2500여 중소기업이 포진한 생산도시 광주의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일한 새누리당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순천 곡성)은 설 기간 동안 지역에서 열리는 공동 세배에 참석한 후 민심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농어촌지역인 고흥·보성을 지역구로 둔 김승남 의원은 FTA 체결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농어촌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 수립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권은희 의원(광산 을)은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지역민과 대면 접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로 방대한 민생점검 계획을 세웠다. 지난 2·8 정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석패한 박지원 의원(목포)은 “지역민은 물론 다양한 분들을 찾아 넓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향후 당의 진로와 호남 정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위원장은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솔직한 조언과 지혜를 구할 생각”이라고,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강진 장흥 영암)은 “민심의 현주소를 파악해 새로운 당,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이재호 의원(담양 장성 함평 영광)은 “지역 내 여론주도층 인

사를 만나 경제와 복지 등 무엇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남구를 지역구로 둔 장병완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 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 문화기술연구 신축 등 남구의 비전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 “울 지역현안사업 설명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과 농업재해대책법 등 입법 활동 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치 입문 초심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과 어르신께 세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이윤석 의원(무안 신안)은 “우선 무안·신안군청과 경찰서를 방문, 연휴에도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이라며 “또, 읍면 노인회관을 찾아가 어르신께 세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갑이 지역구인 박해자 의원은 “광주에서 가장 큰 시장인 양동시장을 찾아 서민경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광천터미널에서 귀향객들을 맞아 설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 임내현(북을), 권은희 의원은 광주은행 관내 지점의 1일명예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만나 서민경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승훈 최고위원(여수 을), 강기정 정책위의장(북강), 김영록 수석대변인(해남 진도 완도) 등 당 지도부는 오는 19~20일 서울역 귀성객 인사와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쌀 떡국 나누기, 사회봉사시설 방문 등 공동 일정이 잡혀 지역구 활동이 빠듯하다.

주 최고위원은 “설 연휴기간 지도부와 함께하는 공식 일정 외에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을 만날 것”이라며 “설 민심을 듣고 치안 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경찰·소방·해경 관계자를 찾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도부 일정 때문에 17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2박3일 지역을 방문하게 됐다”며 “우선 해남·진도·완도 3개 군의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떡국을 대접한 뒤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축·수협·산림조합 196곳 600여명 서로 “내가 적임자다” 물밑경쟁 ‘후끈’

■ 광주·전남 조합장 동시선거 누가 뛰나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농·축·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입지자들은 설 연휴를 맞아 분주히 발품을 팔며 24~25일 후보등록에 앞서 지역별 사전경쟁에 돌입했다.

◇광산구 등 ‘미니 지방선거’ 발발=원협과 축협을 포함해 17명의 조합장을 뽑는 광주에서는 현재 신중한 후보 속에 50여명이 출마에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균 보다 높은 4대1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지역으로는 7곳의 선거구가 몰려 있는 광산구가 최대 격전지며 유권자는 3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광주 지역에서 격전지로 관심이 쏠리는 곳은 규모가 크고 경합이 치열한 이른바 지역농협 ‘빅3’로 불리는 광주농협과 남광주농협, 서광주농협. 지역 최대 규모인 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선인 한진실 현 조합장과 김기호 전 조합장, 박노수·서기택 전 이사, 김순택(현 대의원) 등 4명이 물밑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광주농협은 3선인 현 이완수 조합장과 함께 이영중 전 상임이사, 최종섭 전 조합장, 정남석 전 이사 등 5명이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광주농협의 경우 문병우 현 조합장을 비롯해 오강기 전 조합장과 정환진 전 지점장의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광주 지역 최대선인 4선 조합장을 배출한 서창농협 역시 관심지다. 16년째 서창농협을 이끌고 있는 배인수 현 조합장이 5선에 도전할 경우 불꽃 경쟁이 예상된다. 김옥태 현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동곡농협은 유상선 전 조합장을 비롯해 김순옥(주민자치위원장), 이동훈(농업경영인), 유병래(전 공무원)씨 등 6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 179곳·예상 후보자만 550여명=전남 지역은 농·축협 143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모두 179곳에서 치러진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인원은 5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권자 수는 44만여명에 이른다.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단연 목포농협. 전남 최대선인 9선 오정숙 현 조합장의 10선 달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오 조합장이 출마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세대교체

론을 내세우며 8~9명의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합원만 1만8000여명에 이르는 순천농협은 그야말로 격전지다. 이광하 현 조합장과 강성채 전 조합장이 4년만에 진검승부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에서 단 한차례의 재선을 허용치 않은 터여서 수성과 설유전을 따는 이들의 대결에 조합원들의 선택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으로는 축협 1명, 산림조합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조합장을 뽑는 나주 지역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나주농협은 3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양자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조선인 허철호 현 조합장이 거론되고 있고 김동식 전 상무가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다시농협은 이계익 조합장의 3선 도전 속에 홍성식 전 전무와 유재일 조합원이 도전장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노안농협은 우대봉 현 조합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일 전 이사와 홍기범 전 농협직원이 우 조합장의 3선 지지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14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해남 역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해남농협은 현 민병래 조합장과 6명의 후보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2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옥천농협도 박재현 현 조합장이 출마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3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 17·산림조합 19곳도=수협 중에는 목포수협과 거문도수협이 관심거리다. 목포수협은 지난 2010년 9월 당선된 최형식 조합장의 재선 시도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김정룡 현 감사와 정복용 어민회장의 강력한 도전이 예상된다. 거문도수협은 김석환 조합장을 비롯해 5명의 입지자들이 거론되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김광석 현 감사, 김효현 전 이사, 박정국 현 이사, 배완실 전 이사 등 4명의 전현직 조합간부들이 조합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장흥·고흥·보성에서는 산림조합장 선거가 뜨겁다. 한 번 더 조합장직 수선에 나선 이들에게 새로운 인물로 변화를 내세운 도전자들의 기세도 만만찮다. 고흥산림조합장선거에는 송영현 현 조합장이 4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박기주 전 광주시 산림계장, 박양영 입협후계자, 유병현 전 면장 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교육인내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재(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회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5년 3월 06일 (금) 16:00
-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가. 영입보고 나. 감사보고
-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27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7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용 (직인생략)